

男女 中學生들의 傳統 飲食에 대한 意識과 嗜好度 調査研究

— 서울과 전주를 중심으로 —

김 윤 신* · 한 용 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A Study on the Preception and Prefera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of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 Seoul and Jeonju

Kim, Yun-Sin* · Han, Yong-Bo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nderstanding and preferance in 28 kinds of traditional korean food of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in a survey conducted from 25th August to 8th September in 1993 in Seoul and Jeonju.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409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 students have preception(75.8%) and favor(82%)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And they do not take very often without ceremonial and traditional-holyday, because the cooking method and process are sophiscate and difficult(76.5%).

However, they want that korean tradtional food should success, keep and develop the cooking apparatus and simplifying cooking method.

I. 서 론

인체는 끊임없이 성장 발육하며 조직의 재생과 생명의 유지를 위해 매일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필요한 영양 공급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 사회는 생활이 매우 분주해지면서 빠른 시간내에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서구 문물의 도래로 식생활 또한 서구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질병 또한 서구화되어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어린이 당뇨병, 고지혈증도 발견되고

있어 염려되는 바이다.¹⁾

반면에,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대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생겨난 우리의 전통음식은 사회구조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의 복잡화, 기계문명의 발달, 환경의 악화, 경제적 제약등의 여러가지 문제와 더불어 점차 그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각종 의례(儀禮)시 전통적인 상차림이 간소화되고 있는 한편,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한 보다 실용적이고 간편한 요리로 변화되어가고 있다.²⁾

특히, 복잡한 생활 속에서 간편성이 추구되고, 외식 산업이 발전되면서 식생활에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 푸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공 식품은 편의성을 위해,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 신선도를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식품 첨가물을 부득이 사용하게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³⁻⁶⁾

반면, 한국인의 체질에 맞고, 여러가지 식품의 배합이 잘 이루어져, 날로 증가되는 만성 퇴행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전통 음식에 대한 재조명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식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전통음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식습관은 우리 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전통 음식을 알게 하여 우리의 식문화에 대해 긍지를 갖도록 하고, 올바른 의식을 심어 주어,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통 음식에 대한 조사 연구로는 기호 조사 연구^{7) 8)} · 의식 조사 연구^{9) 10)} · 절식 음식에 관한 연구^{11) 12)} · 각 지방 향토 음식에 대한 고찰¹³⁻¹⁸⁾ · 전통 음식의 이용 현황에 관한 연구^{19) 20)} · 우리 나라 전통적 음식의 조리법에 관한 연구²¹⁾ 등이 있다. 특히, 전통 음식에 대한 의식, 기호, 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을 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과 전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중학생들의 전통 음식에 대한 의식과 기호 및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본 조사 결과는 오늘날 instant food와 fast food에 길들여져가는 청소년들에게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음식을 바르게 전승, 보전시킬 뿐아니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며, 특히 청소년층에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등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로 저변확

대의 기회가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과 전주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4개 학교에서 1993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예비 조사를 거쳐 총 45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본 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409부를 통계 처리에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는 서울의 ○여중(106), B중(101), 전주의 S여중(107), X중(105)이었다.

2. 설문 작성 및 내용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도,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도, 전통음식의 기호도 및 이용 실태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전통 음식의 이용 실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음식 28가지를 제시하고 자주 이용하는 것과,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통 음식에 대한 기호도 조사는 위의 전통 음식 28가지를 나열하여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한다', '안 먹는다', '먹어 본 일이 없다'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3. 조사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였다. 빈도, 백분율을 구하고, 변인과의 관계는 χ^2 -검증을 이용하여 .01, .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일부지역의 학생들로 이들이 전체 학생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사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6%이고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이 50.6%, 전주 49.4%를 차지하였다. 가족 형태는 확대 가족 13.9%, 핵가족 86.1%로 나타났다. 가장의 학력은 대졸 34.0%, 고졸 50.4%, 중졸 11.5%, 국졸 3.7%로 고졸 이상이 84.4%를 차지하였다. 월수입은 80-120만원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0만원 이상이 38.6%, 50-80만원이 12.2%, 5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족은 4.4%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나 연립 주택 49.1%, 양옥 30.1%, 한옥 9.5%, 기타 1.2%였다.

2. 전통 음식에 대한 기초 지식 조사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전통 음식의 정의로 '우리 전통 문화와 함께 발전 시켜온 한국의 요리'가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지방의 특산물 요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19.6%를 차지하였다. 즉 많은 학생들이 전통 음식은 전통 문화와 함께 발전 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전통 음식에 대한 정의

문항내용	N	%
우리 전통 문화와 함께 발전 시켜온 한국의 요리	314	76.8
현재 우리가 가장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음식	9	2.2
왕실 반가의 화려했던 요리	4	1.0
각지방의 특산물 요리	80	19.6
무응답	2	0.5
계	409	100.0

〈표 2〉에서와 같이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은 김치(92.9%), 나물(92.9%), 국(81.9%), 떡(91.2%), 장아찌(71.4%)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상차림*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58.1%

가 '알고 있다'에, 41.9%가 '잘 알지 못한다'에 답하였다.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²⁾ 결과와 같았다. 집단별로는 여학생은 61.8%가 '알고 있다'에, 남학생은 54.5%에, 여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 유의성을 보였다($P < .01$). 또한 남학생의 경우 '전혀 모른다'가 12.4%인데 비해 여학생은 3.4%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이 여학생들에게만 실시되고 있고, 가정에서 가사일을 돕는 일도 주로 여학생들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거주 지역, 가족 형태, 주거 형태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다.

또, '명절 음식에 대해 알고 있다'가 87.9%로 선행 연구(50.9% - 51.3%)²⁾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윤택한 경제생활에 의해 우리것을 찾으려는 풍토가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집단별로는 여학생(91.3%)이 남학생(84.5%)보다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고 유의적이었다는($P < .05$) 결과도 여

〈표 2〉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

음식명	N	%
탕수육	27	6.6
편육	185	45.2
도너츠	4	1.0
나물	380	92.9
전유어	214	52.3
찜	228	55.7
난자완스	2	0.5
국	335	81.9
생채	279	68.2
토우스트	4	1.0
김치	380	92.9
전골	238	92.9
김초밥	125	30.6
떡	373	91.2
햄버거	2	0.5
샌드위치	2	0.5
확	91	22.2
탕	249	60.9
장아찌	292	71.4
젓갈	345	84.4

* 전통인 상차림: 밥, 국, 김치, 찌개(조치), 나물, 적 등으로 된 상차림.

시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게 학교와 집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과 참여를 권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조사

전통 음식을 '좋아한다'가 82.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매우 좋아한다'가 23.4%인데 반해, 여학생은 11.6%로 낮게 나타났고,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가 남학생은 12.4%인데 반해 여학생은 20.8%로 높게 나타나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각종 외래 음식의 범람에도 아직은 전통 음식 계승의 여지가 엿보여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된다.

전통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53.5%로 가장 많고 '영양적으로 우수하므로'(22.8%), '고유 음식이므로'(16.2%), '항상 먹으므로'(7.5%)순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성은 없었으나, 서울은 '맛이 좋아서'가 60.0%, 전주의 경우 47.1%였고, 또 '고유 음식이므로'는 전주 21.2%, 서울 10.9%로 거주 지역별로 유의성이 있었다($P < .05$).

외래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전통 음식의 맛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아직은 우리 전통 음식의 맛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생각된다. 특히 전주는 옛것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고, 전통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이 다양하게 발달된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전통 음식을 좋아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서울에 비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36.6%), '조리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33.8%), '자주 먹을 수 없으므로'(26.8%), '영양가가 적다'(2.2%)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 음식의 이용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32.8%)와 '조리 방법이 복잡해서'(31.8%), '시간이 없어서'(16.4%), '조리 방법을 몰라서'(1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²³⁾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가사 실습 경험이 많아, 전통 음식의 '조리법이 복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상 생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 음식의 조리법 개선과 간소화 연구가 필요 요구된다.

전통 음식을 계승 발전 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집단별 유의한 차 없이 조사 대상자의 91.9%가 '필

요하다'라는 결과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²⁴⁾보다 높았다. 산업의 발달과 외래 문물의 유입으로 instant food, fast food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를 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전통 음식에 관해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75.5%, '그저 그렇다' 21.1%, '불필요하다' 3.4%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여학생(80.2%)이 남학생(70.6%)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남녀간에 유의한 차가 있었다($P < .05$). 그러나 남학생들에게는 현행 교육 과정에 가정과 가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요하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식과 학교 식당에서 전통 음식을 현재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필요하다' 69.8%, '그저 그렇다' 25.0%, '불필요하다' 4.9%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73.1%로 여학생 66.7%보다 좀더 높게 나타나 유의성을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학교 급식이나 학교 식당에서 전통 음식의 이용을 늘려야 함이 요구되며 전통음식의 보급과 계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 음식의 조리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가 76.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가 17.0%, '불필요하다'는 6.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학생 86.0%, 남학생 72.5%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와 '불필요하다'는 남학생 27.5%, 여학생 14.0%로 남녀간 유의성이 반대로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전통 음식의 조리법이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절이나 의례때 상차림을 전통 음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76.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거주지별로 유의성을 보여($P < .05$) 남학생(80.6%)이 여학생(72.4%)보다 많았으며, 전주(83.1%)가 서울(70.0%)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전통 음식의 이용 실태와 기호 조사

1) 전통 음식의 이용 실태 조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음식 28가지를

나열하고 집에서 자주 먹는 것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음식을 선정하도록 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전통 음식의 이용 실태

음식명	자주 이용하는 음식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	
	빈도	(%)	빈도	(%)
밥	406	(99.3)	405	(99.0)
죽	37	(9.0)	235	(57.5)
국수	213	(52.1)	315	(77.0)
만두	129	(31.5)	197	(48.2)
떡국	58	(14.2)	296	(72.4)
국	365	(89.2)	366	(89.5)
탕	118	(28.9)	209	(51.1)
찌개	389	(95.1)	367	(89.7)
전골	29	(7.1)	97	(23.7)
볶음	278	(68.0)	346	(84.6)
찜	104	(25.4)	216	(52.8)
생채	224	(54.8)	286	(69.9)
나물	344	(84.1)	357	(87.3)
조림	254	(62.1)	299	(73.1)
전유어	73	(17.8)	196	(47.9)
구이	204	(49.9)	266	(65.0)
적	128	(31.3)	236	(57.7)
회	55	(13.4)	72	(17.6)
장아찌	181	(44.3)	232	(56.7)
편육	36	(8.8)	14	(18.1)
족편	10	(2.4)	39	(9.5)
묵	134	(32.8)	135	(5.8)
튀각	48	(11.7)	87	(21.3)
포	38	(9.3)	54	(13.2)
쌈	208	(50.9)	201	(49.1)
김치	394	(96.3)	381	(93.2)
젓갈	209	(51.1)	144	(35.2)
떡	142	(34.7)	126	(30.8)
한과	22	(5.4)	62	(15.2)

(11.7%) 등은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묵(5.8%), 족편(9.5%), 포(13.2%), 한과(15.2%), 회(17.6%), 편육(18.1%), 튀각(21.3%), 떡(30.8%) 등은 비교적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음식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2) 전통 음식의 종류별 기호 실태 조사

전통 음식 28가지에 대해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한다', '안 먹는다', '먹어본 일이 없다'로 구분하여 성별과 거주지별로 조사하였다.

'매우 좋아한다'와 '좋아한다'의 응답한 결과, 밥(84.9%), 죽(41.6%), 국수(73.1%), 만두(83.4%), 국(64.6%), 떡국(78.7%), 탕(40.4%), 찌개(74.6%), 전골(37.4%), 볶음(82.35%), 찜(53.2%), 생채(45.7%), 나물(43.0%), 조림(53.1%), 전유어(27.2%), 구이(72.1%), 적(51.6%), 회(42.4%), 장아찌(28.8%), 편육(27.6%), 족편(25.4%), 묵(52.7%), 튀각(42.4%), 포(40.8%), 쌈(74.8%), 김치(76.4%), 젓갈(37.5%), 떡(72.7%), 한과(59.8%)로 나타났다. 밥, 만두, 볶음, 김치, 떡국, 찌개, 국수, 쌈, 떡 등은 특히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싫어한다'와 '안 먹는다'는 밥(0.5%), 죽(19%), 국수(8.8%), 만두(3.2%), 떡국(5.4%), 국(5.3%), 탕(11.7%), 찌개(2.5%), 전골(22.6%), 볶음(2.2%), 찜(14.5%), 생채(12.8%), 나물(20.8%), 조림(10.4%), 구이(9.4%), 적(10.6%), 회(32.8%), 장아찌(32.8%), 편육(23.6%), 족편(29.8%), 묵(13.7%), 튀각(14.8%), 포(17.7%), 쌈(4.4%), 김치(3.9%), 젓갈(28.1%), 떡(8.1%), 한과(10.7%)였고, 특히 회, 장아찌, 족편, 편육, 전골, 나물 등은 싫어하였다.

또, 죽, 만두, 탕, 전골, 생채, 찜, 적, 회, 편육, 장아찌, 족편, 튀각, 포 등은 먹어 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한 28종류의 음식의 기호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류의 기호도

밥은 남학생(83.1%)이 여학생(71.0%)보다 좋아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 지역별 차이는 없었다(P<.05).

국수도 남학생(70.8%)이 여학생(55.5%)보다 좋아 하였고, 서울이(70.5%)이 전주(55.5%)보다 많

집에서 자주 이용하는 음식은 밥(99.3%), 김치(96.3%), 찌개(95.1%), 국(89.2%), 나물(84.1%), 볶음(68.0%), 조림(62.1%), 생채(54.8%), 국수(52.1%), 젓갈(51.1%), 쌈(50.9%) 등이었고, 족편(2.4%), 한과(5.4%), 전골(7.1%), 편육(8.8%), 죽(9.0%), 튀각

〈표 4〉 전통 음식에 대한 기호 실태 조사

	구분		매우 좋아한다	좋아 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 한다	안 먹는다	먹어본 적이없다	계	비고
	성별	남 여								
1) 밥	성별	남	75(37.3)	92(45.8)	34(16.9)	0(0.0)	0(0.0)	0(0.0)	201(49.3)	$\chi^2=12.37$ DF=5 P<.05
		여	51(24.6)	96(46.4)	59(28.5)	1(0.5)	0(0.0)	0(0.0)	207(50.7)	
	거주 지	서울	64(31.0)	97(47.1)	45(21.8)	0(0.0)	0(0.0)	0(0.0)	206(50.5)	$\chi^2=1.28$ DF=5 N.S
		전주	62(30.1)	91(45.0)	48(23.8)	1(0.5)	0(0.0)	0(0.0)	202(49.5)	
2) 죽	성별	남	38(19.0)	47(23.5)	80(40.0)	28(14.0)	6(3.0)	1(0.5)	201(49.3)	$\chi^2=5.75$ DF=5 N.S
		여	25(12.1)	59(28.6)	82(39.8)	31(15.0)	9(4.4)	0(0.0)	207(50.7)	
	거주 지	서울	33(16.1)	60(29.3)	75(23.6)	31(15.1)	6(2.9)	0(0.0)	206(50.5)	$\chi^2=4.59$ DF=5 N.S
		전주	30(14.9)	46(22.9)	87(43.3)	28(13.9)	9(4.5)	1(0.5)	202(49.5)	
3) 국수	성별	남	73(36.1)	70(34.7)	48(23.8)	10(5.0)	1(0.5)	0(0.0)	202(49.4)	$\chi^2=15.22$ DF=5 P<.01
		여	45(21.7)	70(33.8)	67(32.4)	22(10.6)	3(1.4)	0(0.0)	207(50.6)	
	거주 지	서울	75(36.2)	71(34.3)	41(19.8)	17(8.2)	3(1.4)	0(0.0)	207(50.6)	$\chi^2=19.24$ DF=5 P<.001
		전주	43(21.3)	69(34.2)	74(36.6)	15(7.4)	1(0.5)	0(0.0)	202(49.4)	
4) 만두	성별	남	113(55.9)	63(31.2)	22(10.9)	2(1.0)	1(0.5)	1(0.5)	202(49.4)	$\chi^2=28.59$ DF=5 P<.001
		여	65(31.4)	100(48.3)	32(15.5)	9(4.3)	1(0.5)	0(0.0)	207(50.6)	
	거주 지	서울	91(44.0)	79(38.2)	26(12.6)	9(4.3)	1(0.5)	1(0.5)	207(50.6)	$\chi^2=5.71$ DF=5 N.S
		전주	87(43.1)	84(41.6)	28(13.9)	2(1.0)	1(0.5)	0(0.0)	202(49.4)	
5) 떡국	성별	남	95(47.0)	72(35.6)	26(12.9)	7(3.5)	2(1.0)	0(0.0)	202(49.4)	$\chi^2=8.72$ DF=5 P<.05
		여	69(33.3)	86(41.5)	39(18.8)	11(5.3)	2(1.0)	0(0.0)	207(50.6)	
	거주 지	서울	88(42.5)	77(37.2)	29(14.0)	10(4.8)	3(1.4)	0(0.0)	207(50.6)	$\chi^2=2.89$ DF=5 N.S
		전주	76(37.6)	81(40.1)	36(13.9)	8(4.0)	1(0.5)	0(0.0)	202(49.4)	
6) 국	성별	남	68(33.7)	81(40.1)	43(21.3)	9(4.5)	1(0.5)	0(0.0)	202(49.4)	$\chi^2=26.29$ DF=5 P<.001
		여	30(14.5)	85(41.1)	80(38.6)	10(4.8)	2(1.0)	0(0.0)	207(50.6)	
	거주 지	서울	52(25.1)	81(39.1)	59(28.5)	13(6.3)	2(1.0)	0(0.0)	207(50.6)	$\chi^2=3.52$ DF=5 N.S
		전주	46(22.8)	85(42.1)	64(31.7)	6(3.0)	1(0.5)	0(0.0)	202(49.4)	
7) 탕	성별	남	50(24.8)	75(37.1)	53(26.2)	10(5.0)	7(3.5)	7(3.5)	202(49.4)	$\chi^2=27.54$ DF=5 P<.001
		여	29(14.0)	52(25.1)	92(44.4)	24(11.6)	7(3.4)	3(1.4)	207(50.6)	
	거주 지	서울	45(21.7)	65(31.4)	65(31.4)	18(8.7)	8(3.9)	6(2.9)	207(50.6)	$\chi^2=3.90$ DF=5 N.S
		전주	34(16.8)	62(30.7)	80(39.6)	16(7.9)	6(2.9)	4(2.0)	202(49.4)	
8) 찌개	성별	남	91(45.0)	75(37.1)	31(15.3)	5(2.5)	0(0.0)	0(0.0)	202(49.4)	$\chi^2=31.03$ DF=5 P<.001
		여	45(21.7)	94(45.4)	63(30.4)	3(1.4)	2(1.0)	0(0.0)	207(50.6)	
	거주 지	서울	78(37.7)	79(38.2)	46(22.2)	3(1.4)	1(0.5)	0(0.0)	207(50.6)	$\chi^2=4.14$ DF=5 N.S
		전주	58(28.7)	90(44.6)	48(23.8)	5(2.5)	1(0.5)	0(0.0)	202(49.4)	
9) 전골	성별	남	38(18.9)	40(19.9)	57(28.4)	20(10.0)	18(9.0)	28(13.9)	202(49.4)	$\chi^2=13.95$ DF=5 P<.05
		여	23(11.2)	51(24.8)	65(31.6)	31(15.0)	23(11.2)	13(6.3)	207(50.6)	
	거주 지	서울	36(17.5)	40(19.4)	54(26.2)	31(15.0)	25(12.1)	20(9.7)	207(50.6)	$\chi^2=9.23$ DF=5 N.S
		전주	25(12.4)	51(25.4)	68(33.8)	20(10.0)	16(8.0)	21(10.4)	202(49.4)	
10) 볶음	성별	남	90(44.8)	87(43.3)	22(10.9)	0(0.0)	0(0.0)	2(1.0)	201(49.3)	$\chi^2=18.95$ DF=5 P<.05
		여	61(29.5)	98(47.3)	37(17.9)	9(4.3)	0(0.0)	2(1.0)	207(50.7)	
	거주 지	서울	80(38.8)	83(40.3)	34(16.5)	5(2.4)	0(0.0)	4(1.9)	206(50.5)	$\chi^2=7.93$ DF=5 N.S
		전주	71(35.1)	102(50.5)	25(12.4)	4(2.0)	0(0.0)	0(0.0)	202(49.5)	

11) 찜	성별	남	53(26.2)	49(24.3)	72(35.6)	11(5.4)	11(5.4)	6(3.0)	202(49.4)	$\chi^2=27.37$
		여	30(14.5)	77(37.2)	74(35.7)	23(11.1)	3(1.4)	0(0.0)	207(50.6)	DF=5 P<.001
	거주지	서울	44(21.3)	66(31.9)	62(30.0)	22(10.6)	8(3.9)	5(2.4)	207(50.6)	$\chi^2=9.74$
		전주	39(19.3)	60(29.7)	84(41.6)	12(5.9)	6(3.0)	1(0.5)	202(49.4)	DF=5 N.S
12) 생체	성별	남	39(19.5)	54(27.0)	67(33.5)	19(9.5)	11(5.5)	10(5.0)	200(49.4)	$\chi^2=11.97$
		여	35(17.1)	57(27.8)	89(43.4)	18(8.8)	4(2.0)	2(1.0)	205(50.6)	DF=5 P<.001
	거주지	서울	46(22.7)	51(25.1)	62(30.5)	25(12.3)	8(3.9)	11(5.4)	203(50.1)	$\chi^2=24.64$
		전주	28(13.9)	60(29.7)	94(46.5)	12(5.9)	7(3.5)	1(0.5)	202(49.9)	DF=5 N.S
13) 나물	성별	남	45(22.3)	54(26.7)	59(29.2)	35(17.3)	7(3.5)	2(1.0)	202(49.4)	$\chi^2=15.61$
		여	19(9.2)	58(28.0)	85(41.1)	34(16.4)	9(4.3)	2(1.0)	204(50.6)	DF=5 P<.01
	거주지	서울	42(20.3)	57(27.5)	63(30.4)	36(17.4)	8(3.9)	1(0.5)	207(50.6)	$\chi^2=9.61$
		전주	22(10.9)	55(29.2)	81(40.0)	33(16.3)	0(0.5)	1(0.5)	202(49.4)	DF=5 N.S
14) 조림	성별	남	44(21.8)	77(38.1)	55(27.2)	20(9.9)	6(3.0)	0(0.0)	202(49.4)	$\chi^2=25.99$
		여	16(7.7)	80(38.6)	94(45.4)	15(7.2)	2(1.0)	0(0.0)	207(50.6)	DF=5 P<.001
	거주지	서울	35(16.9)	78(37.7)	69(33.3)	18(8.7)	7(3.4)	0(0.0)	207(50.6)	$\chi^2=6.95$
		전주	25(12.4)	79(39.1)	80(39.6)	17(8.4)	1(0.5)	0(0.0)	202(49.4)	DF=5 N.S
15) 구이	성별	남	62(30.8)	71(35.3)	44(21.9)	12(6.0)	6(3.0)	6(3.0)	201(49.4)	$\chi^2=24.02$
		여	33(16.0)	87(42.4)	66(32.0)	18(8.7)	2(1.0)	0(0.0)	206(50.6)	DF=5 P<.001
	거주지	서울	51(24.9)	76(37.1)	52(25.4)	17(8.3)	5(2.4)	4(2.0)	205(50.4)	$\chi^2=2.75$
		전주	44(21.8)	82(40.6)	58(28.7)	13(6.4)	3(1.5)	2(1.0)	202(49.6)	DF=5 N.S
16) 적	성별	남	57(28.4)	44(21.9)	46(22.9)	14(7.0)	7(3.5)	33(16.4)	201(49.4)	$\chi^2=33.22$
		여	43(20.9)	66(32.0)	70(34.0)	18(8.7)	4(1.9)	5(2.4)	206(50.6)	DF=5 P<.001
	거주지	서울	50(24.4)	43(21.0)	49(23.9)	24(11.7)	9(4.4)	30(14.6)	205(50.4)	$\chi^2=33.20$
		전주	50(24.8)	67(33.2)	67(33.2)	8(4.0)	2(1.0)	8(4.0)	202(49.6)	DF=5 P<.001
17) 회	성별	남	39(19.5)	54(27.0)	67(33.5)	19(9.5)	11(5.5)	10(5.0)	200(49.4)	$\chi^2=11.97$
		여	35(17.1)	57(27.8)	89(43.4)	18(8.8)	4(2.0)	2(1.0)	205(50.6)	DF=5 P<.001
	거주지	서울	46(22.7)	51(25.1)	62(30.5)	25(12.3)	8(3.9)	11(5.4)	203(50.1)	$\chi^2=24.64$
		전주	28(13.9)	60(29.7)	94(46.5)	12(5.9)	7(3.5)	1(0.5)	202(49.9)	DF=5 N.S
18) 장아찌	성별	남	30(14.9)	43(21.3)	59(29.2)	41(20.3)	18(8.9)	11(5.4)	202(49.4)	$\chi^2=14.39$
		여	11(5.3)	34(16.4)	77(37.2)	49(23.7)	26(12.6)	10(4.8)	207(50.6)	DF=5 P<.05
	거주지	서울	29(14.0)	43(20.8)	57(27.5)	42(20.3)	23(11.1)	13(6.3)	207(50.1)	$\chi^2=13.28$
		전주	12(5.9)	34(16.0)	79(39.1)	48(23.8)	21(10.4)	8(4.0)	202(49.9)	DF=5 P<.05
19) 편육	성별	남	31(15.4)	27(13.4)	51(25.4)	15(7.5)	13(6.5)	64(31.8)	201(49.4)	$\chi^2=32.61$
		여	27(13.1)	27(13.1)	56(27.2)	46(22.3)	22(10.7)	28(13.6)	206(50.6)	DF=6 P<.001
	거주지	서울	38(18.4)	24(11.6)	45(21.7)	30(14.5)	23(11.1)	47(22.7)	207(50.9)	$\chi^2=12.35$
		전주	20(10.0)	30(15.0)	62(31.0)	31(15.5)	12(6.0)	45(22.5)	200(22.5)	DF=5 N.S
20) 죽편	성별	남	31(15.4)	22(10.9)	44(21.9)	27(13.4)	20(10.0)	57(28.4)	201(49.5)	$\chi^2=15.21$
		여	21(10.2)	29(14.1)	47(22.9)	47(22.9)	27(13.2)	34(16.6)	205(50.5)	DF=5 P<.01
	거주지	서울	46(22.7)	31(15.0)	39(18.9)	29(14.1)	21(10.2)	50(24.3)	206(50.7)	$\chi^2=16.72$
		전주	28(13.9)	20(10.0)	52(26.0)	45(22.5)	26(13.0)	41(20.5)	200(49.3)	DF=5 P<.01
21) 묵	성별	남	59(29.6)	59(29.6)	56(28.1)	17(8.6)	6(3.0)	2(1.0)	199(49.0)	$\chi^2=10.87$
		여	36(17.4)	60(29.0)	77(37.2)	24(11.6)	9(4.3)	1(0.5)	207(51.0)	DF=5 P<.05
	거주지	서울	64(31.2)	61(29.8)	53(25.9)	19(9.3)	6(2.9)	2(1.0)	205(50.5)	$\chi^2=18.14$
		전주	31(15.4)	58(28.9)	80(39.8)	22(10.9)	9(4.5)	1(0.5)	201(49.5)	DF=5 P<.01

	구분		매우 좋아한다	좋아 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 한다	안 먹는다	먹어본 적이없다	계	비고
	성별	남여								
22) 튀각	성별	남여	52(26.1)	37(18.6)	53(26.6)	10(5.0)	11(5.5)	36(18.1)	199(49.0)	$\chi^2=47.67$ DF=5 P<.001
		남여	23(11.1)	60(29.0)	78(37.7)	25(12.1)	14(6.8)	7(3.4)	207(50.7)	
	거주 지	서울	41(19.9)	48(23.3)	58(28.2)	24(11.7)	15(7.3)	20(9.7)	206(50.7)	$\chi^2=8.33$
		전주	34(17.0)	49(24.5)	73(36.5)	8(14.3)	10(5.0)	23(11.5)	200(49.3)	DF=5 N.S
23) 포	성별	남여	46(23.2)	42(21.2)	57(28.8)	15(7.6)	8(4.0)	30(15.2)	198(49.3)	$\chi^2=32.08$ DF=5 P<.001
		남여	25(12.3)	51(25.0)	73(35.8)	32(15.7)	16(7.8)	7(3.4)	204(50.7)	
	거주 지	서울	44(21.7)	44(21.7)	59(26.1)	24(11.8)	12(5.9)	20(9.9)	203(50.5)	$\chi^2=5.67$
		전주	27(13.6)	49(24.6)	71(35.7)	23(11.6)	12(6.0)	17(8.5)	199(49.5)	DF=5 N.S
24) 쌀	성별	남여	81(40.9)	75(37.9)	26(13.1)	6(3.0)	5(2.5)	5(2.5)	198(49.0)	$\chi^2=22.19$ DF=5 P<.001
		남여	62(30.1)	84(40.8)	53(25.7)	7(3.4)	0(0.0)	0(0.0)	206(51.0)	
	거주 지	서울	80(39.2)	65(31.9)	45(22.1)	8(3.9)	2(1.0)	4(2.0)	204(50.5)	$\chi^2=11.50$
		전주	63(31.5)	94(47.0)	34(17.0)	5(2.5)	3(1.5)	1(0.5)	200(49.5)	DF=5 P<.05
25) 김치	성별	남여	87(43.5)	75(37.5)	32(16.0)	4(2.0)	2(1.0)	0(0.0)	202(49.1)	$\chi^2=6.78$ DF=5 N.S
		남여	72(34.8)	77(37.2)	48(23.2)	9(4.3)	1(0.5)	0(0.0)	207(50.9)	
	거주 지	서울	87(42.2)	69(33.5)	43(20.9)	4(1.9)	3(1.5)	0(0.0)	206(50.6)	$\chi^2=8.02$
		전주	87(35.8)	83(41.3)	37(18.4)	9(4.5)	0(0.0)	0(0.0)	201(49.4)	DF=5 N.S
26) 젓갈	성별	남여	44(22.4)	45(23.0)	46(23.5)	42(21.4)	14(7.1)	5(2.6)	196(48.8)	$\chi^2=22.86$ DF=5 P<.001
		남여	16(7.8)	46(22.3)	79(38.3)	39(18.9)	18(8.7)	8(3.9)	206(51.2)	
	거주 지	서울	46(22.8)	49(24.3)	58(28.7)	33(16.3)	11(5.4)	5(2.5)	202(50.2)	$\chi^2=24.84$
		전주	14(7.0)	42(21.0)	67(33.5)	48(24.0)	21(10.5)	8(4.0)	200(49.8)	DF=5 P<.0001
27) 떡	성별	남여	96(48.0)	64(32.0)	30(15.0)	8(4.0)	5(2.5)	1(0.5)	200(49.1)	$\chi^2=18.34$ DF=5 P<.01
		남여	64(30.9)	72(34.8)	47(22.7)	21(10.1)	3(1.4)	0(0.0)	207(50.9)	
	거주 지	서울	89(43.2)	71(34.5)	32(15.5)	11(5.3)	2(1.0)	1(0.5)	206(50.6)	$\chi^2=7.11$
		전주	71(35.3)	65(32.3)	45(22.4)	18(9.0)	2(1.0)	0(0.0)	201(49.4)	DF=5 N.S
28) 한과	성별	남여	82(41.2)	50(25.1)	42(21.1)	9(4.5)	5(2.5)	11(5.5)	199(49.0)	$\chi^2=25.24$ DF=5 P<.001
		남여	51(24.6)	60(29.0)	64(30.9)	23(11.1)	7(3.4)	2(1.0)	207(51.0)	
	거주 지	서울	67(32.7)	55(26.8)	49(23.95)	19(9.3)	3(1.5)	12(5.9)	205(50.5)	$\chi^2=8.43$
		전주	66(32.8)	55(27.4)	57(28.4)	13(6.5)	2(0.9)	8(3.9)	201(49.9)	DF=5 N.S

았다(P<.01).

만두는 남학생(87.1%)이 여학생(79.7%)보다, 떡국도 남학생(82.6%)이 여학생(74.8%)보다 좋아하였다(P<.05).

***국과 탕류의 기호도**

국은 남학생(73.8%)이 여학생(55.6%)보다 또탕과 찌개도 남학생(71.9%, 82.1%)이 여학생(39.1%, 67.1%)보다 좋아 하였다(P<.001).

전골은 여학생(26.2%)이 남학생(19.0%)보다 더 싫어하였고, 남학생(13.9%)과 여학생(6.3%)이 먹어 본적이 없다고 답하였다(P<.05).

***기타 부식물의 기호도**

볶음은 남학생(88.1%)이 여학생(76.8%)보다, 찜은 여학생(11.1%)이 남학생(5.4%)보다 좋아 하였다(P<.001).

생채를 선호하는 정도는 남녀 학생이 비슷하였으나, 서울(12.5%)이 전주(5.9%)보다 많았다(P<.05, P<.001).

나물은 남학생(49.0%)이 여학생(37.2%)보다, 조림과 구이도 남학생(59.9%, 66.1%)이 여학생(47.3%, 58.2%)보다 좋아 하였다(P<.001, P<.001).

적은 여학생(52.9%)이 남학생(50.3%)보다 좋아

하였고, 전주(58.0%)가 서울(45.4%)보다 선호하였다($P < .001$).

회는 남녀 모두(46.0%, 44.9%) 좋아 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서울(54.6%)이 전주(29.8%)보다 선호하며, 지역별 유의성을 보였다($P < .001$).

편육은 남녀(28.8%, 26.2%) 성별 유의성 없이 좋아 하였으나 여학생(33.0%)이 남학생(14.0%)보다 싫어하였다($P < .001$).

족편은 여학생(36.1%) 남학생(23.4%)보다 싫어하였고, 전주(33.5%)가 서울(24.3%)로 지역별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묵은 남학생(59.2%)이 여학생(46.4%)보다, 서울(61.1%)이 전주(44.3%)보다 좋아 하였다($P < .005$, $P < .001$).

튀각은 남학생(44.7%)이 여학생(40.1%)보다 선호하였으나, 여학생(18.9%)이 남학생(10.5%)보다 싫어하였다($P < .001$).

포는 남학생(44.4%)이 여학생(37.3%)보다 좋아하였고($P < .001$) 찜도 남학생(78.8%)이 여학생(70.9%)보다, 전주(78.5%)가 서울(71.1%)보다 좋아 하였다($P < .001$, $P < .001$).

김치는 집단간의 유의성 차이없이 모두 선호하였다.

젓갈은 남학생(45.4%)이 여학생(30.1%)보다 서울(47.1%)이 전주(28.0%)보다 좋아 하였다($P < .001$).

***떡과 한과의 기호도**

떡은 남학생(80.0%)이 여학생(75.7%)보다, 한과도 남학생(66.3%)이 여학생(53.6%)보다 선호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과 이해, 또 가정에서의 이용 현황, 기호 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전승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중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빈도, 백분율, χ^2 -검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 음식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함께 발전시켜온 한국의 요리(75.8%)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전통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음식은 김치, 나물, 떡, 젓갈, 국 등의 순이었다. 전통적인 상차림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58.1%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었다. 명절 음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가 87.5%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더 많이 알고 있었다.

2) 전통 음식을 ‘좋아한다’는 비율이 82.0%로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아 유의성을 보였다. 이유는 ‘맛이 좋아서’(53.5%), ‘영양적으로 우수하므로’(22.8%), ‘고유 음식이므로’(16.2%), ‘항상 먹으므로’(7.5%) 순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으나 ‘맛이 좋아서’는 서울이 높았고 ‘고유 음식이므로’는 전주가 높아 거주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통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36.6%), ‘조리 방법이 복잡하고’(33.8%), ‘자주 먹을 수 없으므로’(26.8%), ‘영양가가 적어서’(2.8%) 순으로 나타났으나 집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전통 음식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32.8%), ‘조리 방법이 복잡해서’(31.8%)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관심이 없어서’(37.8%), 여학생의 경우는 ‘조리 방법이 복잡해서’(40.1%)가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서울의 경우 ‘조리 방법이 복잡해서’(38.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주의 경우 ‘관심이 없어서’(38.0%)가 가장 높아, 성별과 거주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전통 음식에 관해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가 75.5% 나 되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5) 학교 급식이나 학교 식당에서 전통 음식을 좀더 많이 이용하는 일에 대하여 남학생(73.1%)이 여학생(66.7%)보다 필요하다 하였다.

6) 전통 음식에 대한 조리법의 개선과 간편화가 ‘필요하다’가 76.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명절이나 의례때 전통 음식으로 상차림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가 76.5%로 많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 전주가 서울보다 높아 유의성을 보였다.

8) 전통 음식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집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음식'은 밥, 김치, 찌개, 국, 나물, 볶음, 조림, 생채, 국수, 것갈, 쌈 등의 순이었고, 즉편, 한과, 전골, 편육, 죽, 튀각 등은 '자주 이용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음식'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9) 전통 음식의 기호 조사에서 밥, 만두, 볶음, 김치, 떡국, 찌개, 국수, 쌈, 떡 등을 특히 좋아하는 것으로, 또 회, 장아찌, 즉편, 편육, 전골, 나물 등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 국수, 만두, 떡국, 국, 탕, 찌개, 볶음, 나물, 조림, 구이, 장아찌, 목, 튀각, 포, 쌈, 것갈, 떡, 한과 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좋아하는 음식은 '적'으로 나타났다.

국수, 생채, 회, 장아찌, 것갈 등은 서울 학생들이 전주 학생들보다, 적, 쌈 등은 전주 학생들이 서울 학생들보다 더욱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간에 유의성이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서울 학생들이 전주 학생들보다는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먹어 본 일이 없는 음식은 편육, 즉편, 전골, 회, 튀각 등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신속한 교통통신이 동·서양의 문화 교류를 가속화 시켜 외국의 많은 음식들이 물밀듯이 유입되었고, 그 이용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전통 음식에 대한 의식은 매우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즉 전통 음식을 바르게 전승시키고, 많이 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도적이었고, 전통 음식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전통 음식의 조리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식습관은 어릴때부터 서서히 형성되므로, 청소년들의 입맛이 외래 음식이나 각종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기 전에 우리 고유의 여러 가지 전통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리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며, 조리 시간

이 많이 드는 점은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부적합하므로 조리 방법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전통 음식을 좀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조리 기구를 연구 개발하고,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반조리 식품의 개발이나, 냉동식품이 위생적인 조리 체계를 거쳐 대중화되어야 하며, 우유나 빵을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전통 음식이 제품화되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가공, 식품 영양학 및 조리 연구가, 또 식품 관련 기업가간의 협동하여 연구 노력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이일화, 한국인의 식생활 영양의 변화가 건강 및 질병상태에 미친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4) : 3569-372, 1993.
- 2) 윤서석, 한국 식생활 문화의 고찰, 한국 영양학회지 19(2) : 107-113, 2986.
- 3) 신민자, 한국 식생활 문화의 어제와 오늘, 국민영양 4 : 14-18, 1986.
- 4) 이종미, 한국인의 식생활 형성과정과 문제점, 충남대 「가정 교육 연구」 창간호 : 47-53, 1986.
- 5) 모수미, 김창임, 이십열, 윤은영, 이경신, 최경숙 : 패스트 푸드의 외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 식문화 학회지 1(3) : 295-309, 1986.
- 6) 모수미, 한국외식문화의 발달과정, 9(2) : 181-188, 1994.
- 7) 안숙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한국 일상식의 기호에 관한 연구, 가정 문화론집, 2 : 125-160, 1988.
- 8) 박미섬, 한국 음식에 대한 여고생의 의식과 기호에 관한 조사 연구,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과교육 학회지 3(1) : 163-177, 1991.
- 9) 任良淳, 의례 음식에 대한 주부의 의식 조사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 과학 연구 20 : 247-265, 1984.
- 10) 조연숙, 전통 음식에 관한 도시 주부들의 의식 조사 연구-대구 중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1) 나 철, 節食 飲食에 관한 도시 여성들의 의식 동향 조사, 飛獅論集 217-231.
- 12) 윤옥현, 경주 지역 전통 節食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3) 임양순, 우리 나라 節食에 관한 연구, 한국 식문화 학회지 4 : 361-369, 1986.
- 14) 김향희, 한국 節食의 시행 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 연구-강릉, 대전, 전주, 대구 지역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5) 손 진, 각 지방 향토 음식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가정학 연구 5 : 88-100, 1980.
- 16) 황혜성, 한복, 한복진 : 한국의 전통 음식, 교문사, 13-15, 1991.
- 17) 윤서석 한국 민속학, '민속과 음식', 수학사, 1978.
- 18) 윤숙경, 안동지역의 향토음식에 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1) : 61-69, 1994.
- 19) 이영남, 신민자, 김복남 : 전통 음식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 식문화 학회지, 6(1) : 71-81, 1991.
- 20) 尹點變, 국민학교 아동의 전통 병이류에 대한 기호 및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21) 송유경, 우리나라 전통적인 조리법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1982.
- 22) 황은선, 가정과 학술 내용에 대한 여중생의 관심도 및 실천 정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